

전남교육청, 내년 본예산 4조4410억…올해비 4440억 ↓

기금 소진·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줄어

교육 본질 회복 현장중심 재정 운영 방침

전남도교육청이 4조441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에도 적립된 기금 활용을 통해 전남 교

육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26년 역시 보유 기금 소진과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 세입 재원의 총 규모 축소에도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재정 운영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8850억원 대비 4440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가 전수입 3조907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140억원, 자체 수입 307억원, 전년도 이월금 590억원, 기금전입금 300억원이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2904억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3033억원 △참여·

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487억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9388억원 등이다.

또 주도적 배움을 키워가는 학교문화 정착, 시민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확산,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벌 교육 고도화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603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 교육복지 강화에 1807억원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온돌네 초등돌봄 및 방과

후학교 운영 739억원 △빈틈없이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및 학교 신설 등에 학교시설환경개선 3724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학교 기본은 영비·기초학력 등 교육의 본질적 사업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했고,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자체 경비로 운영한 교과서배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22억원을 추가 확보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3년간 지속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도 적립된 기금과 교직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재정 구조개선으로 교육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면서 “내년에도 재정규모 축소로 어려움이 많지만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16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명품 영암쌀 김밥말이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 농업인, 첨단농업 대전환으로 세계 농업 선도 다짐

영암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자부심 고취·소통의 장

전남도는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식을 열어 미래 첨단 농업 대전환으로 세계 농업을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농업인의 날은 당초 민간자적으로 지정됐던 기념일이다.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부터 법정기념일로 승격됐다.

전남도와 영암군이 주최하고 (사)전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상임대표 최원

섭)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우승희 영암군수, 농업 분야 유관기관장과 농업인단체 대표, 22개 시군 농업인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전남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혁신과 농업 비전을 담은 '위대한 전남 농업인'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주제공연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선 고소득 쌀 생산 분야 이병연 해남군 농촌지도자회 사무국장

등 5개 분야 농업인 대상을 비롯해 농업 발전 유공자 18명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또한 행사 슬로건 '위대한 농업인이 키워가는 OK! 지금은 전남시대'를 주제로 국악과 성악 등이 어우러진 현대판 퓨전 주제공연은 참가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원형 LED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 농업 대모작 구현 퍼포먼스를 통해 전남도의 첨단 농업으로 성공적인 대전환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가졌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사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병해충 피해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속에서도 식량 안보와 가정의 식탁을

지키면서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30만 전남 농업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위대한 전남 농업인이 만든 성과 위에 지속 가능한 첨단농업 대전환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전남 농업 시대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2027년까지, 해남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2027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첨단과 린바이오산업 육성,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등 첨단 농업 대전환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권의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bul@gwangnam.co.kr

김태균 도의장, 'K-스틸법 조속 입법' 촉구

철강산업 지속가능 경쟁력 강화·균형발전 기반 마련 강조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사진)은 최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돼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 조속

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극화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스텝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3news1@gwangnam.co.kr

“5·18 사적지, 안전·소방 등 관리실태 부실”

서임석 시의원, 옛 적십자병원·국군광주병원 등 지적

서임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사진)은 11일 “옛 적십자병원과 국군광주병원 등 5·18 사적지가 보행·안전·소방 모두 방치된 채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두 건물 모두 매년 시민을 위한 특별전시가 반복되고 있지만 영조물배상공제 미가입·안전점검 미이행·화재를 대비한 소방계획 부재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기억이 서린 공간을 행정의 시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광주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자치행정국은 영조물배상공제 미가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시민안전실은 제3종시설물의 등록, 안전실태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민주인권평화국은 올해 5월 시민 개방전시 중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점검계획 부재·소방서 통보 미이행 상태로 행사를 진행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보험은 원천적으로 가입했어야 했는데 미지치 못



했다”며 “현재 건물은 폐쇄돼 있고 용도 기능에 상설된 상태지만, 행정이 대비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물이 폐쇄돼 있다”는 행정은리로 시민의 안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시민이 한 발자국이라도 드나드는 공간이라면, 보행·안전·소방 계획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서 의원 질의에 대해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재사용 시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군광주병원은 건축물대장조차 없어 법적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전기·가스·소방 등 법적 점검기준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매년 시민이 출입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며 “행정의 구조적 무책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템플스테이 참가비 50% 할인 구례 천은사 등 총 15개 사찰

전남도는 범국민 여행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50% 할인한다.

이 프로그램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포함돼 추진된다.

전남에서는 대원사(보성), 대흥사(해남), 백련사(강진), 백양사(장성), 불갑사(영광), 불회사(나주), 선암사·송광사(순천), 신흥사(완도), 쌍봉사(화순), 연곡사·천은사(구례), 운주사(화순), 향일암·흥국사(여수) 등 총 15개 사찰이 참여한다.

템플스테이는 스님과의 차담, 심호흡·건강·감사 명상, 예불, 사찰음식 만들기 등 휴식이 필요한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남도 템플스테이 체험관광의 자세한 내용과 예약 방법은 ‘템플스테이 누리집’(https://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bul@

자치운동 포럼 ‘새로운 광주’ 22일 본격 출범

배우 손병호 진행…문인 북구청장 등 토론자로 참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침체된 광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 ‘새로운 광주’가 출범한다.

새로운광주 포럼(대표 홍인환)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자치운동을 선언한다.

포럼 ‘새로운 광주’의 자치운동은 다분히 박제화되고 전유물화된 5월 광주정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 정신을 일상 속 민주주의로 되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를 타파하고, 실사구시로 시민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포럼 ‘새로운 광주’의 출범 목적이다.

이번 출범식의 주제는 ‘광주정신, 오늘의 삶이 되다’이며, 행사는 퍼포먼스 ‘광주의

시간’, 연극 ‘어쩌라고’, 토크콘서트 ‘광주의 삶을 말한다’, 새로운 광주 선언문 낭독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퍼포먼스 ‘광주의 시간’은 3·1만세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빛의 혁명까지 광주의 역사와 현재 시간을 영상과 무용으로 보여준다. 나 모문화네트워크 이사를 맡고 있는 최규웅 씨가 총감독을, 연출에 조혜수씨, 안무는 무용가 김연우씨가 맡았다.

연극 ‘어쩌라고’는 취업, 결혼, 내집 마련 등 광주의 청년들이 늘 겪는 고민을 위로 있게 풀어낸 단막극 형식의 콩트이다. 출범식 메인 행사라고 할 있는 토크콘서트는 손병호 제민으로 잘 알려진 배우 손병호씨의 진행으로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대학생, 행정인 등 각 분야의 대표들



문인 북구청장(사진)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출범식 행사의 대미는 새로운 광주 선언문 낭독이다. 광주 시민 대표출연자 142명이 함께 하는 ‘빛의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동안 문인 북구청장 등 시민 대표 6명은 ‘새로운 광주’를 선언한다.

홍인환 새로운 광주 포럼 대표는 “새로운 광주는 시민들이 있고 있었던 광주정신을 시민들의 삶에서 부활시키기 위해 조직된 시민운동체”라며 “새로운 자치운동의 시발점이 될 이번 출범식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 광주의 삶을 진솔하게 얘기한다.

특히 토크콘서트에 행정인이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광주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생활가이드 배포

광주시는 지역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체류, 의료, 법률,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광주생활가이드’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지원원, 5개 자치구 가족센터, 외국인전화병원 등 58개소에 배포를 완료했다. 현장 배포와 함께 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란과 광주가이드 누리집(gwangjiuguide.or

kr)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된다.

이 책자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등 총 10개 언어로 제작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주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책자에는 등록 및 체류 절차, 건강보험과 의료기관 이용, 육아와 교육, 생활법률, 한국어교육, 긴급전화, 외국인 지원기관 안내 등의 실질적인 생활정보가 수록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